

지역 소식통

고창군 콩 선별장 호응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영중인 콩 자동화선별장이 지역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콩은 밭에서 수확해 병해충 피해를 받은 콩과 콩피부리, 콩 껍질 등 이물질이 5% 정도 섞여 있어 크기가 균일하지 않아 선별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고창군 콩 선별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 2곳에서 4대 운영 중이다. 최근 노후장비 2대도 교체할 완료해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하루평균 대당 4000kg정도의 콩을 정선할 수 있다.

콩의 품질을 균일하게 높여주기 위한 선별작업은 검정콩, 약콩, 메주콩 등 종류별로 실시되며 임대료는 20kg들이 1포대 당 1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민 공익수당 미지급자

정읍시, 선불카드도 지급

정읍시가 본인 명의 휴대폰 미소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농민 공익수당(정향누리 상품권)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 공익수당 선불카드 지급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가당 60만 원씩 지급되는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아 10,672 농가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이후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9,322 농가를 대상으로 '정향누리 상품권(카드, 모바일) 지급을 완료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정향누리 상품권을 지급받지 못한 1,337 농가에 대해서는 농민 공익수당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시... 방역 초비상

발생농장 반경 3km이내 농가, 긴급 예방적 살처분

4일까지 가금농장 이동 제한 등 발 빠른 초동 방역

정읍시는 지난달 28일 소성면 소재 육용 오리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A가 최종 확진됨에 따라 발 빠른 초동 방역에 나섰다.

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또, 발생농장과 반경 3km 이내 방역대에 소재한 가금 사육 농가 7호와 부화장 1개소에 대해 2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가금류 487,000수 대한 살처분하고 부화장의 오리종란 400,000개를 폐기처분 하는 등 긴급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정읍시는 지난 28일 소성면 소재 육용 오리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A가 최종 확진됨에 따라 발 빠른 초동방역에 나섰다.

등 긴급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더불어 AI 차단방역을 위해 기존 거점 세척·소독시설 외에도 거점 소독 시설과 발생농장 인근 주요 도로 3개소에 방역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했다.

반경 10km 이내 지역은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닭(22호), 오리(11호), 메추리(1호) 등 1,485,000 수와 부화장 3개소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또 지난 28일부터 12월 4일까지(7일간) 정읍시 전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방역방제기 2대, 방역 차량 1대, 드론 11대, 헬기 방제 1대, 살수차 3대, 공동방제 방역 차량 7대 등 가용한 모든 장비를 동원해 철새도래지 주변과 하천 도로, 발생 농가 주변 집중과 함께 지역별 맞춤형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가금 사육 농장도 농장 외부 석회 벨트 농장 입구 소독, 농장주 소독, 신발 소독 등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이행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종식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업을 통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안도로인 국도 30호선 쌍계재에 노을경관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안군, 쌍계재 노을경관쉼터 조성

국비 36억원 들여 내년 완공

부안군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업을 통해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안도로인 국도 30호선 쌍계재에 노을경관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을경관쉼터는 세계 3대 낙조(SUNSET)보다 아름다운 변산 낙조 및 천혜의 고풍한 경관 등 환상의 전망을 자랑하는 위치에 조성될 계획이며 내소시와 체석강 적벽강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을경관쉼터가 조성되는 위치는 지

난 30년간 국도변에 지어진 가설건물로 인해 주변경관 저해와 교통사고 유발 등 민원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민선 7기 출범부터 민원 해결 등을 위한 노을경관쉼터 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 추진하게 됐다. 노을경관쉼터는 총사업비 국비 36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약 4000㎡ 부지에 전망대와 주차장 화장실 데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장건물 9동 중 8동에 대한 철거가 이뤄지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코로나 극복 공직자 감성행정 펼칠 것"

주민에 따뜻한 난로 역할 당부

권익현 부안군수가 겨울철을 맞아 공직자 모두가 따뜻한 난로가 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자며 주민을 먼저 섬기는 감성행정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30일 열린 11월 중 연석회의에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일일 500명을 넘어서면서 재확산 속도와 규모가 점점 커져가는 시점"이라며 "각 부서는 담당사별로 필요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확인 등을 통해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타 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를 하고 무증상 감염이 많은 만큼 증상이 없더라도 의심이 되면 선별진료소를 찾아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노력해 달라"며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하다"는 말처럼 코로나19는 꼭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청정부안을 사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언급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공직자 전체가 따뜻한 난로가 돼 온기를 전해줄 수 있도록 감성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관광, 치유·힐링 앞세워 위기를 기회로"

고창관광발전네트워크 토론회

"고창관광, 치유·힐링 앞세워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야"

고창군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코로나19시대 급변하는 지역관광의 전략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창관광발전네트워크(회장 진영호)는 지난달 27일 고창군 생물관보전관리센터에서 고창인 관광토론회를

열었다. 고창관광발전네트워크는 지역 관광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광인들이 만든 순수 민간단체다.

토론회에선 한범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대 패러다임 변화 속 관광업, 손민호 중앙일보 여행레저담당 차장이 '여행수요자의 행태 변화와 지역관광의 대응전략', 정기운 하나투어 경영기획본부 상무가 관광업계 현황과 전망, 지역관광의 활로'를 주제 발

표했다.

전문가들은 고창만의 대표 관광콘텐츠 발굴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콘텐츠가 갖춰야 할 요소로 '고창에서만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타 경쟁상품보다 획기적이어야 하며, 일상에 꼭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창군은 산 들,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면역 건강관리, 치유·힐링 등의 고객 니즈를 반영한 웰니스 관광과의 융복합 상품을 중점 개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정향누리 상품권' 조기 완판

250억원대 오늘 판매 종료

내년 400억원 규모 재발행

정읍시가 지역 자급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도입한 정향누리 상품권이 조기 완판됐다.

지난 30일 시에 따르면 250억 원대 정향누리 상품권이 연말을 한 달여 앞두고 조기 완판되어 12월 1일 상품권 판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시는 적극적인 홍보와 가맹점 확보 노력이 완판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당초 지류 50억 원과 모바일·카드 상품권 150억 원 규모로 발행했으나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50억 원을 추가 발행 총 250억 원을 발행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8% 4월부터 10% 특별할인판매를 추진했다.

특히, 4월부터는 QR코드를 이용해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했고, 9월에는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

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카드형 상품권도 발행했다.

시는 정향누리 상품권에 대한 호응이 높고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1년에는 발행규모를 2020년의 2배인 4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단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으로만 판매하고, 발행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지류(종이) 상품권은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도도 정향누리 상품권 구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골목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더불어 살기 좋은 정읍, 향기문화국 정읍 건설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정향누리 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으로만 출시되며 지역 내 3,5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카드형 상품권은 농협과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한, 산림조합 등 19개 금융기관 46개 지점에서 충전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